



모나코에서 보낸 생의 아름다운 시절

'Belle Epoque' in Monaco

비상하는 세 마리의 새를 표현한 프랑스 혁명 200주년 기념 로고의 도안을 했던 장 미셸 폴롱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은 곳은 고국 벨기에도, 그의 작품에 열광하던 미국도 아닌 모나코였다. 그 자세한 속사정은 알 수 없지만 모나코라는 작은 나라의 존재 가치는 결코 그 땅덩어리로 따질 만한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세계적인 부자와 예술가들이 평소의 휴식은 물론 말년의 평온을 보낼 곳으로 주저 없이 모나코를 꼽고 있다. 내로라하는 귀족과 유명 인사들의 피난처이자 쉼터인 모나코, 그 가운데서도 평온한 휴식에의 욕망을 남김없이 채워주는 유명 호텔들은 단순한 숙박업소가 아닌 모나코의 진면목을 확인시켜준다.

글 남기현월드 커뮤니케이션스 | 사진 Worldcom, 자료 제공 및 취재 협조 프랑스정부 관광성, SEM Group | 에디터 영지영

모나코의 보석 'Hôtel de Paris' 가장 값비싼 여행의 전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자 세계의 부자들이 선택하는 첫 번째 휴양지 모나코, 2km²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나라 모나코에 붙는 술한 수식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의 귀를 가장 솔깃하게 하는 것은 단연 모나코 곳곳에서 풍겨 나오는 부유함에서 시작되었다. 여행에서도 마찬가지다. 마음먹고 이곳을 즐기기 위해 찾아온 이들에게 모나코의 호텔들은 어느 곳에서 맛보지 못했던 '명불허전'의 서비스와 여유로움을 안겨준다.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 예술가들이 그저 이 호텔들에서 묵기 위해 일부러 모나코를 찾는 것은 그 명성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보석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호텔 드 파리(Hôtel de Paris)다. 카지노의 나라로도 유명한 모나코의 중심가이자 왕궁 재정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그랑 카지노와 가까이 자리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호텔의 가치는 일단 확인되는 셈이다. 1864년에 세워졌으니 모나코에서 가

장 오래된 호텔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물론 SBM(Société des Bains de Mer) 그룹의 첫 번째 포트폴리오라고도 할 수 있다.

오늘날의 프랑스 파리를 있게 한 아름다운 시절, '벨 에포크(Belle Époque)' 양식이 돋보이는 이곳은 척박하기만 했던 몬테카를로에 당시 국왕이었던 샤를 3세가 카지노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시작하면서 건축가 뤼트루로가 건설한, 처음부터 유럽 부호의 입맛에 딱 들어맞게 디자인된 호텔이다. 모나코 카지노의 역사와 함께한 만큼 곳곳에는 세심하게 신경 쓴 흔적이 역력하다. 화려한 장식과 더불어 중후한 멋을 담은 실내는 물론 파리 카푸신 대로에 자리한 '그랑 호텔' 과 모나코의 '몬테카를로 오페라 하우스' 를 디자인한 샤를 가르니에로 하여금 게임 룰을 디자인하게 한 것은 어느 한 곳 소홀함이 없겠다는 철저한 계획성을 보여준다. 세계의 부호들이 찾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샤를 3세와 SBM의 꿈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고 록펠러, 로스차일드, 반더빌트, 고든 베넷 등의 쟁쟁한 기업가들을 단골 고객으로 확보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의 모나코가 예술인과 부호들의 쉼터로 추앙받는 풍조가 이미 100여 년 전 호텔 드 파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호텔 드 파리는 세계 석학들의 회담장이자 정치적 망명객들의 은신처, 때론 전후 복구와 전후 처리를 책임질 임시 사령부로도 쓰였다고 한다. 특히 2차 대전과 관련해 전후 영국의 윈스턴 처칠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지기도 했다.

1956년의 결혼으로 화제를 낳았던 그레이스 켈리와 레니에는 이미 1974년 레니에 대공의 왕위 계승 25주년 기념식을 호텔 드 파리에서 열기도 했는데, 이날은 모나코의 왕위 계승자인 알베르 왕자가 처음 참석한 공식 만찬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유명 인사와 관련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공간은 지난 2001년 선보인 '윈스턴 처칠 아파트먼트(Winston Churchill Apartment)' 다. 클래식과 모던이 조화를 이룬 이곳은 210m² 규모에 모나코항과 지중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탁월한 조망을 선사하고 있다. 윈스턴 처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이곳은 큼직한 창문으로 지중해 특유의 햇살을 한껏 받아들이면서 그것도 모자라 천장의 유리도 더욱 화사해지도록 디자인되었다. 오직 이곳만을 드나들 수 있는 전용 승강기를 따로 두고 있는 점도 독특하다.

모나코의 유명 호텔들은 레스토랑에 대해 이만저만 신경 쓰지 않는다. 누구 하나 만만치 않은 투숙객들인 만큼 그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곧 소문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호텔 드 파리는 레스토랑 '루이 15세(Louis XV)' 와 '라 살엠페이어(La Salle Empire)' '더 그릴(The Grill)' 등을 비롯해 뷔페 런치를 위한 '라코트 자르덴(Le Côté Jardin)' 등을 보유하고 있다.

135개의 객실과 43개의 아파트먼트, 19개의 주니어 스위트를 거느



린 호텔 드 파리의 규모와 명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채워지는 천문학적인 기록들 덕분이다. 127명의 셰프들이 매일같이 1534파운드의 고기와 200마리 이상의 닭고기, 사냥으로 잡은 150마리 이상의 동물, 14마리의 양을 재료로 요리를 만들어내고 이와 어울려 매일 1400명 이상의 와인들이 동이 나고 있다. 호텔 드 파리의 와인 셀러 규모도 이 대기록 행진에 언제나 함께한다. 1874년 SBM 그룹의 창시자인 프랑수아 블랑(Francois Blan)의 아내, 마리 블랑에 의해 설치된 와인 셀러는 단일 호텔의 와인 셀러로는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호텔 드 파리의 역사는 오늘날의 모나코를 있게 한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전통과 명예를 자랑하는 호텔 드 파리는 규모, 서비스, 위치 어느 하나에서도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마치 숨겨 좋은 직공이 잔 비단처럼 완벽한 미감을 호텔 곳곳에 쏟아내고 있다.

우아함을 호흡하고 재충전하는 공간 'Hôtel Hermitage' 호텔 에르미타주(Hôtel Hermitage)를 방문한 이에게 이곳이 1800년대 후반 작은 여관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연은 과연 얼마나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질까. 벨 에포크풍과 네오클래식적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여성스러우면서도 기품과 우아함, 그리고 곳곳의 화려함까지 갖춘 이 예술품이 허름한 시골 여관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원래 호텔 에르미타주는 초라한 여관에서 시작해 이후에 레스토랑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1928년 SBM 그룹의 일원이 되었다. 그 사이 이곳은 커다란 변화를, 물론 벨 에포크 당시의 프랑스가 그러했듯 아름다



운 변신을 피하게 된다. 가브리엘 페리에 의해 디자인되고, 구스타프 에펠(에펠 탑을 올렸던 바로 그)의 우산을 본뜬 금속 구조물과 스테인 드글라스로 '겨울 정원'이라 불리는 공간을 단장했는가 하면, 온실을 본떠 레스토랑과 호텔을 연결한 통로 '왕자의 갤러리'를 두면서 1906년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공간으로 탄생했다. 조각가로도 유명한 가브리엘 페리에겐 1889년 국제 전시회 대상 수상자이기도 한데 호텔 에르미타주에 그려진 그의 프레스코화는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다. 그 뒤 1970년대 진행되었던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물론 이러한 리노베이션에도 불구하고 로비의 우아한 분위기는 변함이 없고 여기에 옐로와 화이트를 적절히 조화시킨 난초를 테마로 한 꽃장식이 분위기를 한층 더하고 있다. 호텔 에르미타주는 2002년, 같은 해 세계 최고 수준의 호텔에만 부여한다는 '세계 리딩 호텔 연맹(The Leading Hotels of the World)' 회원 자격을 따냄으로써, 호텔 드 파리와 더불어 모나코의 대표적인 럭셔리 호텔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미술쟁 가이드로부터 1개의 별점을 받은 레스토랑 '르 비스타마(Le Vistamar)'는 1999년 세워진 이래 모나코를 들르는 미식가들의 필수 코스가 된 곳이다. 몬테카를로에서 가장 아름다운 테라스를 두고 있다는 찬사를 받기도 한 이곳은, 특히 해산물 요리가 맛있기로 잘 알려져 있다.

196개의 객실과 17개의 주니어 스위트룸, 18개의 로열 스위트룸을 비롯해 크고 작은 연회장용 두루 거느리고 있는 호텔 에르미타주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공간은 '겨울 정원(Winter Garden)'이다. 부드러운

운 파스텔톤으로 단장한 이곳은 인상적인 조명과 분수가 어우러져 따뜻한 분위기를 가득 담고 있다. 이 공간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중앙의 카펫으로 우아함을 마감하는 세심함도 놓칠 수 없다.

호텔 에르미타주를 기억하는 것은 이곳에 들른 이들마다 제각각이겠지만, 의외로 '바 테라스(Bar-Terrasse)'에서의 칵테일 한잔을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호텔 에르미타주의 기품을 느끼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이와 낭만을 되새겨볼 수 있는 곳. 그래서 누구보다 작은 낭만거리에도 열광하는 예술가, 배우들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진 켈리와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도 이곳의 단골 리스트에 기꺼이 이름을 올려놓았을 정도로.

현대적인 것과의 조화 'Hotel Mirabeau' SBM그룹의 호텔들 가운데 가장 모던한 인상을 심어주는 곳을 꼽으라면 단연 '호텔 미라보(Hôtel Mirabeau)' 일 것이다. 여느 호텔들에 비해 최근에 SBM에 속하게 된(1979년 7월 1일) 이곳은 첨단 설비를 두루 갖춘 모던함으로 무장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언뜻 모나코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아함을 간직하고 있어 결코 형제 호텔들에 뒤처지지 않는 사랑을 받고 있다. 모나코 카지노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카지노 궁전(Place du Casino)'의 진입로 가까이, 그리고 몬테카를로 비치와 인접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등 호텔 위치도 뛰어나다.

규모는 89개의 객실과 14개의 주니어 스위트룸을 두고 있는 등 작은 편이다. 하지만 모든 객실에는 우아한 테레이션으로 마감한 널찍한 발코니를 내었고, 멀찌감치 지중해의 푸른 파도가 한손에 잡힐 듯 펼쳐



지는 특별한 선물도 마련해놓고 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된 리노베이션은 호텔 미라보의 찬사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켰다. 로비와 바, 레스토랑을 포함해 객실과 스파 등 모든 시설에서 석재와 목재의 질감과 톤을 잘 살린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현대적인 스타일의 터치로 '이탈리언 클래식'을 불어넣어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지녔다는 것이 이곳을 들른 이들의 한결같은 칭찬이다.

호텔 미라보의 모미는 뭐니 뭐니 해도 작은 규모에서 비롯된 세심한 배려일 것이다. 레스토랑만 해도 전혀 색다른 분위기의 공간을 계절에 맞춰 선사한다. 바닷물을 끌어들이어 만든 풀 사이드에 자리한 '카페 미라보(Café Mirabeau)'는 7, 8월에만 한시적으로 오픈하는 캐주얼한 분위기의 레스토랑. 투숙객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햇살 아래서 점심을 즐길 수 있는 행운을 선사하는 곳이다. 유럽 특유의 엄격하고 정돈된 분위기를 선사하는 '라 쿠폴'(La Coupole)은 정통을 기본으로 맛깔스러운 요리들을 선보이는데, 미라보와는 반대로 7, 8월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임과 각종 연회를 치르기엔 안성맞춤인 연회장도 있는데 동시에 120명에서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새로 문을 열 '게코 바(Gecko Bar)'는 우아한 느낌의 가죽 소파를 둔 편안한 공간, 새로운 스타일의 데커레이션 등으로 벌써부터 모나코 마니아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무거운 분위기보다는 밝고 경쾌함을 표현한 것이 호텔 미라보의 특징. 지중해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져 모나코를 대표하는 호텔들의 대열에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

INFORMATION

모나코 가는 길 : 일단 파리에 도착한 뒤 국내선을 이용, 니스 코트 다 쥐르 국제공항으로 향한다. 파리에서 약 1시간 20분 정도 소요. 공항 도착 후 버스나 기차 등을 이용해 모나코로 이동하면 된다. 항공편이 아니라면 모나코의 몬테카를로로 향하는 TGV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도시간 이동도 버스나 기차로 가능한데, 니스-모나코를 기준으로 볼 때 기차를 이용할 경우 약 20분이 소요된다.

모나코에 관한 여행 정보는 프랑스 관광청(www.franceguide.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SBM이란?

1863년 샤를 3세에 의해 설립된 SBM그룹(Société des Bains de Mer)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모나코의 역사와 시작을 같이하고 있다. 오늘날 독특하고 럭셔리하면서도 몬테카를로의 진수를 전하는 대명사로 통하는 SBM그룹은 1년 365일 중 310일 동안 햇살이 내리쬐는 모나코의 자연만큼이나 빛나는 관광 자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모나코의 대표 그룹이다.

SBM그룹의 경영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호텔, 오페라 하우스, 레스토랑, 카지노, 골프 코스, 테니스 코트, 스파 등 모나코의 럭셔리 투어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아우른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하다. 호텔의 경우 호텔 드 파리(Hôtel de Paris), 호텔 에르미타주(Hôtel Hermitage), 호텔 미라보(Hôtel Mirabeau) 등을 비롯해 몬테카를로 비치 호텔(Monte-Carlo Beach Hotel), 몬테카를로 베이 호텔 앤 리조트(Monte-Carlo Bay Hotel&Resort) 등 모두 다섯 곳을 거느리고 있는데, 모두가 별 4개를 획득하고 있다. 각 호텔들에 속한 레스토랑을 모두 합하면 무려 30개. 여기에 '카페 드 파리(The Café de Paris)'와 '카바레 카지노(The Casino Cabaret)' 등의 부대 식음료업장, 카지노, 나이트클럽 등을 두루 보유하고 있다.

2003~2004년 동안 31억 8700만 유로의 매출을 올린 거대 기업이라는 데이터의 근거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는 이처럼 SBM그룹의 사업 영역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된다. 그야말로 가장 모나코스러우면서도 품격 있는 여행의 처음과 끝은 모두 SBM그룹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듯하다.

Add. Société des Bains de Mer, Place du Casino, Monte-Carlo, MC 98000 Principauté de Monaco

Tel. +377 92 16 20 00

Website. www.montecarloresort.com